

2020 국별 진출전략

모잠비크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정치적 안정 지속 여부	4
나.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4
다.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5
라. 사회인프라 확충 지속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교역	14
다. 투자진출	16
라. 프로젝트	1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9
가. 교역	19
나. 투자	20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1
III. 진출전략	22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3
3. 한-모잠비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7
4. 진출 시 유의사항	30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1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2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3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4
부 록	
對모잠비크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5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모잠비크 경제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평화협정 체결(2019년 8월 6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적 불안 크게 완화
 - 모잠비크 집권 여당(Frelimo)과 야당 반군세력(Renamo) 간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
- 2019년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도 2020년 성장률 회복에 기여
 - * 2019년 3월에 모잠비크 중북부 지방을 연이어 강타한 사이클론(Idai, Keeneth)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파괴되고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부진 심화
- 다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23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
 - IMF는 모잠비크 경제가 2022년까지는 4~5%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다, 2023년부터 천연 가스 생산에 힘입어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25.7	26.3	27.0	27.8	28.6	29.5	30.4	31.3
명목 GDP	십억 달러	15.3	16.9	14.8	10.9	12.6	14.5	14.3	16.7
1인당 명목GDP	달러	590	620	529	379	426	476	493	509
실질성장률	%	7.2	7.4	6.6	3.8	3.7	3.3	1.8	6.0
실업률	%	22.6	25.3	24.7	24.3	24.0	23.0	21.0	20.0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5	3.5	19.8	15.1	3.9	4.2	5.5
재정수지(GDP대비)	%	△3.9	△11.0	△6.1	△8.7	△6.7	△7.2	△6.2	△4.7
총수출	백만 달러	3,856	3,916	3,413	3,328	4,725	5,196	4,581	4,831
(對韓 수출)	"	66	29	12	25	150	236	170	190
총수입	"	7,903	7,952	7,577	4,733	5,223	6,169	6,517	7,095
(對韓 수입)	"	44	101	68	45	57	64	55	65
무역수지	백만 달러	△4,048	△4,163	△4,163	△1,405	△498	△973	△1,936	△2,264
경상수지	"	△6,790	△5,797	△5,968	△3,846	△2,586	△4,362	△5,281	△6,455
환율(연도말)	현지국/US\$	29.8	33.6	45.9	71.4	59.0	61.5	65.6	66.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09	0.97	0.02	0.35	0.26	△0.19	0.03	0.05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6.2	49.0	38.7	30.9	22.9	27.1	29.0	31.0

주: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EIU, IMF, World Bank, UNCTAD, KITA(모두 2019년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020년 모잠비크 경제는 대내외 호조요인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 ※ 북동부 해상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 2016년 발생한 20억 달러 규모의 '은닉부채(Hidden-debt)'¹⁾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모잠비크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가. 정치적 안정 지속 여부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불안 가능성 상존

- 모잠비크 집권 여당(Frelimo)과 야당 반군 세력(Renamo)은 2019년 8월 6일(화)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에서 『평화협정(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 체결
 - 동 협정 체결을 통해 두 세력은 2019년 10월 15일 예정된 선거(대선, 총선, 주지사)에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
- 집권 여당과 반군 세력 간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10월 선거결과를 놓고 두 세력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 상존

나.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은닉부채 스캔들 실사 이후, IMF의 자금지원 재개 여부가 최대의 쟁점

-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계 컨설팅 업체인 Kroll 사(社)에서 모잠비크 정부의 은닉부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실사 결과 발표
 - Kroll은 실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모잠비크 정부에서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은닉 부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발표
- 이와 관련, IMF는 모잠비크 정부가 은닉부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무 재조정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자금지원 재개는 없다는 입장



은닉부채 스캔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IMF의 자금지원 재개 난망

* IMF 등 국제사회(G-14)는 지난 2016년 은닉부채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까지 모잠비크 정부에 연평균 US 467백만(모잠비크 정부 예산의 12%)을 재정지원 형태로 제공해 왔음

1) 모잠비크 지난 2013~14년 동안 의회와 IMF의 승인 없이 차입한 20억 달러 규모의 은닉부채가 2016년에 드러남에 따라, IMF 등 국제사회는 2016년 4월 이후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였음. 금융지원이 중단으로 환율급등, 신용등급 하락, 재정긴축 등이 발생하면서 2016년 이후 모잠비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다.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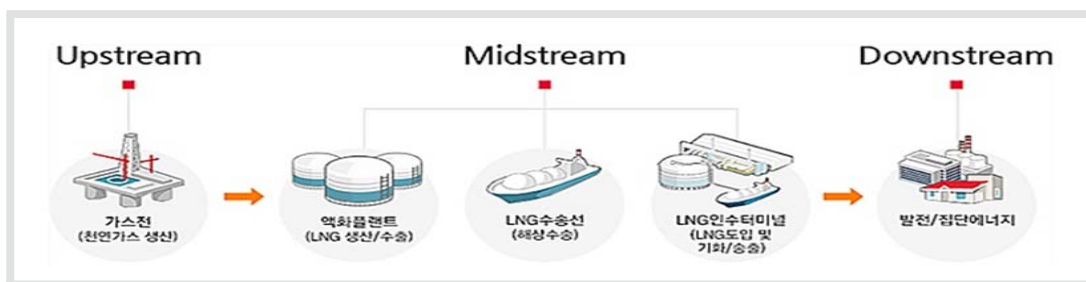
북동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 금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으로 평가되며, 추정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16년 동안 소비 가능한 187TCF

-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의 가스개발 본격화
 - 2011년부터 미국 Anadarko, 이태리 Eni 등 글로벌 자원기업들이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총 6개의 해상광구 중 2개 광구(Area 1, Area 4)에서 천연가스 발견
 - 2017년에 제4광구(Area 4)의 첫 번째 개발사업인 『Coral South FLG』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6월에는 제1광구(Area 1)의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루어지면서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전망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25년간 9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고도 경제성장 기대

천연가스 개발 관련 벨류체인(Value Chain) 및 연관산업* 등에서 우리기업 기회 확대

* 조선(FLNG, FSRU), 해운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 비료 및 화학플랜트, 가스발전소, 플랜트 기자재, 금융업 등



자료 :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법인

라. 사회 인프라 확충 지속

에너지,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SOC 확충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전력보급 확대를 위한 「National Electrification Strategy」 정책 추진 → 발전소, 송배전선 건설 등 전력인프라 분야에 2030년까지 160억 달러 투자 계획
 - * 2016년 기준, 모잠비크의 전력보급률은 26.2%로 매우 저조한 수준
- 석탄 수출 확대를 위한 내륙 운송로(광산 → 항구)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 주요 석탄광산인 Moatize 광산과 수출항을 연결하는 'Nacala Development Corridor' 프로젝트에 US\$ 25억 투자계획 발표(2017년 9월)

♣ 모잠비크 북부지역에서의 이슬람 세력 테러 지속

-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있는 북부지역에서 2017년 10월 이후 이슬람 토착세력의 테러(경찰서 습격, 민간인 살해 등)가 지속되면서 치안불안 심화 →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도 부정적 파급효과 불가피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집권 여당과 반군세력 간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리스크 크게 완화
- ※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사이클론 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 농업, 에너지, 관광, 인프라(SOC) 등 4대 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 ▶ (모잠비크 정부 구조) 모잠비크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임기 5년에 재선까지 가능함. 의회는 단원제로서 총의석수는 250석이며,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5년임
- * 국회의원은 직접선거가 아닌 정당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할당하는 간접선거로 선출됨

2014년 대선·총선에서 집권 여당(Frelimo)의 압승, 그러나 정치적 갈등 심화

- 2014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Filipe 후보가 득표율 57%로 당선되었으며(2015년 1월 취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이 144석으로 과반 확보
- * 정당별 의석수 : Frelimo(144석), Renamo(89석), MDM(17석)
- 2014년 대선·총선을 전후로 한 집권 여당과 야당(Renamo) 반군세력 간 폭력 사태, 야당의 선거 결과 불복 등 정치세력 간 갈등 심화
 - 선거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야당 반군세력의 수장(Afonso Dhlakama)은 모잠비크 중부 산악 지대인 고롱고사(Gorongosa) 지역으로 은신(2015년 10월)

2016년 말부터 화해 무드 조성, 집권 여당과 야당 반군세력 간 ‘평화협정’ 체결(2019년 8월)

- Filipe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Ossufo Mamade 제1야당(Renamo) 당수는 내전 종식 이후 27년 만에 ‘평화협정(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 체결(2019년 8월 6일)
-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Nyusi 대통령과 Renamo 당수는 상호 간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 종식 협정’에도 서명(2019년 8월 1일)
- 집권 여당과 야당 반군세력 간 군사적 대립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리스크 크게 완화

다만, 선거*(2019년 10월 15일) 이후 정정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모잠비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선거에서는 헌법 개정에 따라 주지사 선출과 주의회 선거도 같이 실시



- 제1야당(Renamo)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치열한 선거전이 이루어질 전망
 - 이는 기존 무장 반군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책임 있는 정치세력(정당)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 10월 선거 결과를 전후로 집권 여당(Frelimo)과 제1야당(Renamo) 간 힘겨루기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정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률) 2016~2019년 동안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모잠비크 경제는 2016년 4월에 드러난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이후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중단,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짐
 - 2016년 모잠비크 경제성장률은 3.8%로 과거 16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한 이후 2018년 까지 부진 지속
 - * 모잠비크 경제성장률 추이 : 7.4%(2014) → 6.7%(2015) → 3.8%(2016) → 3.7%(2017) → 3.4%(2018)
- 모잠비크 경제는 2019년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9년 3월에 중북부 지역을 연이어 강타한 사이클론(Idai·Kenneth)의 영향으로 주요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고 농업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더욱 부진을 보일 전망
 - * 2019년 모잠비크 경제성장률 전망치 : 1.8%(IMF), 2.0%(World Bank), △2.2%(EIU)
- 향후 모잠비크 경제는 은닉부채 문제가 변수를 작용하겠으나, 2019년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정치적 안정, 천연가스 개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IMF,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모두 향후 모잠비크 경제가 상기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2020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향후 모잠비크 경제성장률(%) 전망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IMF					1.8	6.0
World Bank	6.7	3.8	3.7	3.4	2.0	3.5
EIU					△0.5	3.0

자료 : IMF(2019년 6월), World Bank(2019년), EIU(2019년) 등

(교역 동향) 수입증가 힘입어 2017년 이후 교역액 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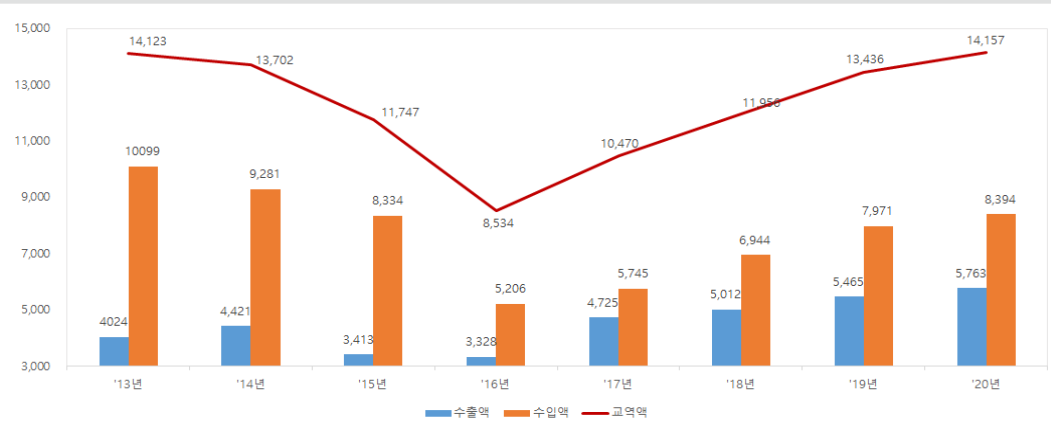
- 모잠비크 교역액은 2013년 14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부진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회복세

* 모잠비크는 주요 교역품목이 원유(전체 수입액의 10% 내외), 석탄·알루미늄(전체 수출액의 약 50%) 등 광물자원 위주여서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교역액이 영향을 많이 받음

-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투자 확대, 사이클론 피해복구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보다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교역액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

* 모잠비크 경상수지 적자규모(GDP 대비) : 20.0%(2017) → 30.4%(2018) → 58.0%(2019) → 66.7%(2020)

모잠비크 교역액(U\$백만)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 : Trademap(2019), IMF(2019.6)

(외국인 투자) 2017년 저점 통과 이후, 광산업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모잠비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3년 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억 달러에 그침

— 이는 2011~2013년 동안 진행된 천연가스 탐사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및 광물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광산업 투자부진 때문으로 분석

- 2018년부터는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

모잠비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입액(U\$백만)	4,902	3,867	3,093	2,293	2,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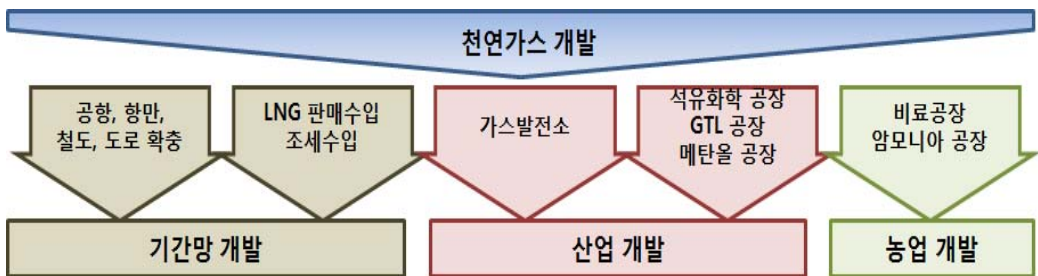
자료 : UNCTAD(2019년)

다. 산업 환경

(천연가스)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모잠비크 경제에 훈풍(薰風)

-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 금세기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견
 - * 동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87TCF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가 16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
 - 2011년부터 미국 Anadarko, 이태리 Eni 등 글로벌 자원기업들이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총 6개의 해상광구 중 2개 광구(Area 1, Area 4)에서 천연가스 발견
-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된 2개 광구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 (Area 4) 최초 개발사업인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 FDI) 완료(2017년 5월), 2022년부터 연간 3.37백만 톤 생산
 - * Area 4 지분구조 : Eni(25%), Exxon-Mobil(25%), CNPC(20%), Galp(10%), ENH(10%), 한국가스공사(10%)
 - (Area 1) 육상에 LNG 저장기지를 건설하는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 발표(2019년 6월), 2024년부터 연간 12.88백만 톤 생산이 가능할 전망
 - * Area 1 지분구조 : Anadarko(26.5%), Mitsui(20%), ONGC(20%), ENH(15%), BPRL(10%), PTTEP(8.5%)
-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세계은행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2046년까지 25년간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
 - * 모잠비크, 천연가스 분야 재정수입을 경제발전에 사용하기 위해 국부펀드(Sovereign Fund) 조성 계획
 - 천연가스 개발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모잠비크 GDP의 9배) 달할 전망
 -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인프라 개발(항구·철도·전력·도로 등), 제조업(비료·암모니아·석유화학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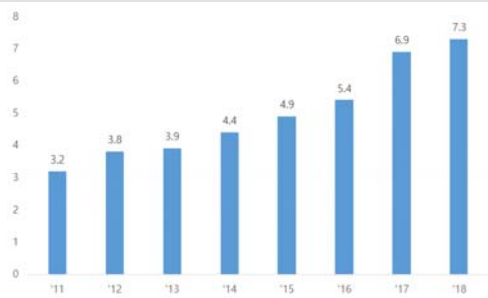
-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모잠비크 경제는 두 자리 대의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 1.8%(2019) → 6.0%(2020) → 4.0%(2021) → 4.0%(2022) → 9.2%(2023) → 11.5%(2024)

☛ (광산업)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모잠비크 경제의 성장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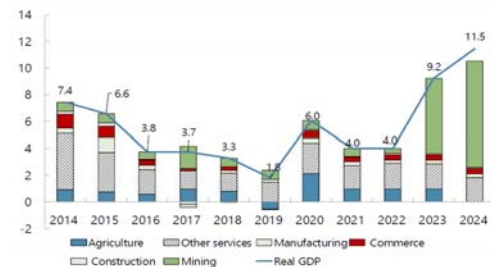
◆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으로 광산업이 모잠비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높음

- 광산업이 모잠비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2%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7.3% 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개발로 광산업 비중 더욱 확대 전망
- 광산업이 모잠비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현재까지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기여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

모잠비크 경제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별 모잠비크 경제성장을 기여도



자료 : IMF(2019년 6월)

☛ (전력)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

-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전체 발전용량은 964MW로, 전년 대비 5.8% 증가
 - 전체 발전용량 중 모잠비크 전력청(ED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 Cahora Bassa댐 수력발전과 독립발전(IPP)에 의존
 - 2018년 기준, 전력생산량은 6,539GWh로, 전년 대비 2.4% 증가
 - * 발전원별로는 Cahora Bass 댐 수력발전(52%)과 독립발전(38%)이 전체의 90% 차지

2018년 모잠비크 전력생산 현황

구분	수력발전	독립발전	EDM	수입
생산량(GWh)	3,458(52.9%)	2478(37.9%)	519(7.9%)	84(1.3%)

주 : 괄호 안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EDM(2019년)

- 모잠비크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가정에 전력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nergy for All' 정책 추진 → 전력인프라 확충에 2030년까지 160억 달러 투자
 - *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전력보급률은 31.1%로 매우 저조한 수준
 - 기존 석탄화력발전 외에, 현재 개발 중인 천연가스 활용 확대를 위한 가스화력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인프라 등도 확대

라. 정책·규제 환경

2025년까지(독립 50주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Agenda 2025' 정책 추진

- 'Agenda 2025'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2015~2019년), 빈곤 감축 계획 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은닉부채 문제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 정책목표 :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민주주의 확대 등

모잠비크 국가발전 전략(Agenda 2025) 및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Agenda 2025 4대 전략	5개년 계획(2015~2019)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2. 국가 통합, 평화와 안정, 사회적 정의의 실현, 지역 공동체의 토지 소유사회, 경제발전에서 여성과 청년층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개선 3. 농촌 개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거시경제의 발전 4.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법치국가의 실현	1. 국가통합, 평화와 질서 2. 인적, 사회적 개발 3. 고용, 생산성, 경쟁력 촉진 4.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 5. 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관리
	5개년 계획(2015~2019) 지원 분야
	1. 민주적 통치, 거버넌스, 분권화 달성 2.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거시경제 3. 국제협력 강화

자료 : 모잠비크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2016년 12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추진

- 모잠비크는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등에 힘입어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반면, 자본 및 인력은 부족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주력
- 모잠비크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 투자청(CPI)과 수출진흥청(IPEX) 등을 통합하여 'APIEX'라는 새로운 무역투자진흥기관 설립(2017년 6월)
- 모잠비크 정부의 중점 투자유치 분야 : 농업, 인프라, 에너지, 관광, 제조업, 가스 등



자료 : APIEX

2 시장 분석

- ※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개발 통해 아프리카의 카타르(Qatar)를 꿈꾸는 미래 유망시장
- ※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인프라(SOC) 확충 프로젝트 지속
- ※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모잠비크 소비시장 선점 노력 필요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내전에 시달린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적 자원 부국으로 부상

- (현재) 모잠비크는 현재 세계 최빈 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중 하나
 - *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GDP는 US\$ 144억으로 세계 125위, 1인당 GDP(US\$ 475)는 세계 186위
 - 구매력 : 빈부격차*가 크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의 소득수준이 낮아,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
 - * 모잠비크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2014년 기준 54.0으로 전년(45.6) 대비 소득불균형 심화 (지니계수 : 0이면 완전평등, 100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 인프라 : 모잠비크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세계 124위*로,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한데, 교통·전력·수자원 분야가 특히 취약
 - * WEF의 20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점수 : 37.3(138개국 중 130위)
- (미래) 동북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의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아프리카의 카타르'를 꿈꾸는 미래 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 등을 통해 2020~2025년 동안 모잠비크 경제가 연평균 7~1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 개발에 힘입어 2030년대 중반에는 중진국 진입 전망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본격화되는 2023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2035년에는 '중소득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2035년 중소득국 진입은 '2015~2035년 국가경제개발전략'에서 설정한 목표
-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금액 투자 → 시장기회 확대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수입(US\$ 160억, 25년간)을 모잠비크 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천연가스를 활용한 경제발전에 적극적
 - 전력, 도로, 통신, 항만 등 기초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대거 발주 전망

나. 교역

※ 우리 기업의 모잠비크 시장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모잠비크 수입시장 동향 중심으로 작성

(개관) 모잠비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시장 위축세이나, 2017년 이후 회복세

- 모잠비크 수입액은 지난 2013년 1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52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회복세 지속
 -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환율 안정, 천연가스 개발 분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 모잠비크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항상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2018년 기준, 무역적자 규모는 193억 달러

최근 5년간 모잠비크 교역 동향

(단위 :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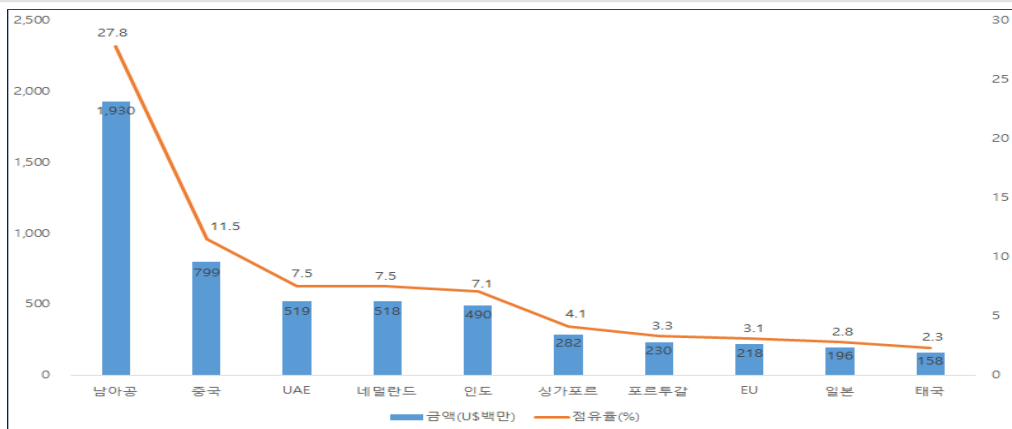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4,024	4,421	3,413	3,328	4,725	5,012
수입액	10,099	9,281	8,334	5,206	5,745	6,944
무역수지	△6,075	△4,860	△4,921	△1,878	△1,020	△1,932

자료 : Trademap(2019년)

(수입시장) 주요 수입국은 남아공·중국·유럽,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전력 등

- (국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경제 대국이자 인근국인 남아공과의 교류 관계가 깊은 편인데, 2018년 기준 남아공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7.8%로 압도적인 1위
 - 우리나라의 모잠비크 수입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미미(2018년 기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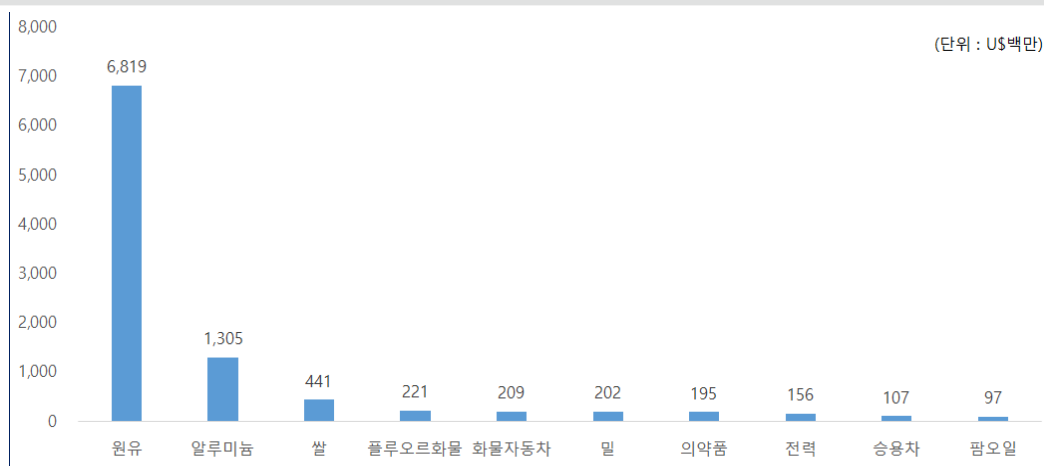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자료 : Trademap(2019년)

- (품목별) 모잠비크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자체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여 자동차, 기계류 등도 수입에 의존
- 모잠비크의 대한(對韓) 주요 수입품목은 2018년 기준, 화학제품(계면활성제, 플라스틱 원재료 등), 승용차, 중고의류, 서적, 건설 중장비, 의약품 등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상위 10대 수입품목



자료 : Trademap(2019년)

(진입장벽) 불투명하고 느린 행정 관행, 부정부패 등이 주요 시장진출 애로사항

- 수입규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조치는 많지 않으나, 불투명한 통관행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주된 애로 요인으로 작용
- * 주요 사례 : 세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HS코드 변경, 상품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
- 수입품에 대한 별도의 강제인증제도는 없으며, 지재권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
- * 수입금지품목 : 서적, 예술품, 음악CD를 포함한 모조제품, 음란물, 모잠비크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모조품, 건강 위해약품과 식품, 증류주, 병원사용 외 마약 등

한국기업 수출 사례

- (신규수출) KOTRA 마푸투 무역관은 국내 내수기업(자동차 광택제)의 모잠비크 시장진출을 위해 해당 업체의 샘플을 수령 후, 모잠비크 바이어 면담 및 제품 시연 등을 통해 1,000달러 규모의 신규수출 성공
- (신시장개척) 국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취급 업체인 A사(社)는 환율급등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 향후 환율급등에 따른 가격 디스카운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오더를 유도

다. 투자진출

(외국인 직접투자) 2013년을 정점으로 최근 5개년간 부진 지속

- (유량^{Flow}) 2011~2014년 동안 이어진 천연가스 탐사 붐으로 2013년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62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부진 지속
 - 이는 그간 국제원자재 가격 부진에 따른 대(對)모잠비크 투자진출 유인 감소, 2013년 투자급 증에 따른 기저효과 같은 기술적 요인, 모잠비크 경기부진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

모잠비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

구분	2005~200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US\$백만)	206	6,175	4,902	3,867	3,093	2,293	2,711

주 : 2005~2007년은 연평균 유입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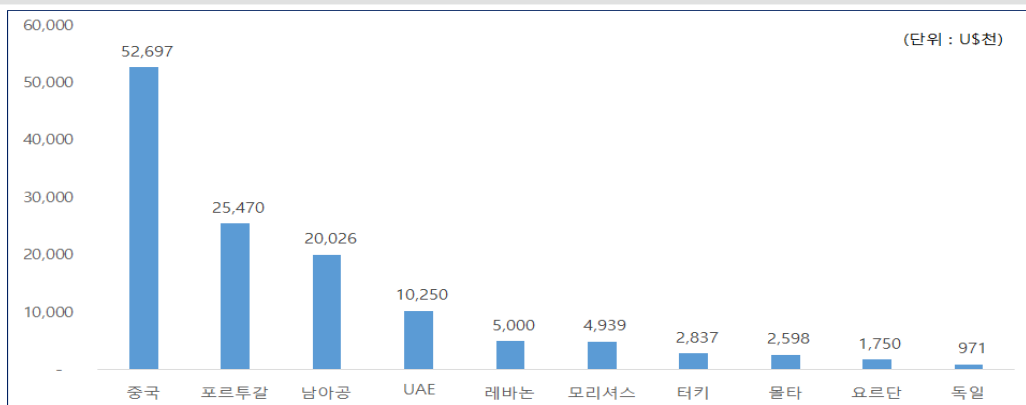
자료 : UNCTAD(2019년)

- (저량^{Stock}) 2018년 말 기준, 모잠비크의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40,664백만 달러(모잠비크 전체 GDP 대비 281.8%)
- 모잠비크 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 실적은 매우 미미한 편
 - * 모잠비크 해외투자 금액 : US\$ 2백만(2015)→US\$ 35백만(2016)→US\$ 26백만(2017)→△US\$ 19백만(2018)

(경쟁국 동향) 중국, 모리셔스, 남아공, 유럽 등이 주요 투자국

- 2019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은 중국으로서 투자금액이 53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포르투갈(25백만 달러), 남아공(20백만 달러), UAE(10백만 달러) 등이 주요 투자국

2019년 상반기 기준 모잠비크의 상위 10대 투자유치 대상국



자료 : APIEX(2019년)



(우리나라 투자 동향) 가스개발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실적 매우 미미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투자금액은 2019년 3월 말 기준, 약 4,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2012~2013년 동안의 가스 배관 건설 투자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투자금액은 매우 미미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전체 투자액(US\$ 42,835천) 중 '전기·가스·증기·배관' 분야 비중 89.2%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직접투자액 추이

구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누계
금액(US\$천)	35,411	6,062	285	968	52	52	7	42,835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한국기업 진출 사례

- 투자형태 및 품목 : 합작투자/자동차 조립
- 진입전략
 - 현지 유력 공기업과 합작사 설립
- 성공 요인
 - 반제품을 수입해 자동차를 조립, 모잠비크의 높은 완제품 관세를 회피하고, 모잠비크 노동 인력의 낮은 기술력에 대처
 - 모잠비크 공기업은 현지파트너의 기존사업 활용한 안정적 판로 개척

라. 프로젝트



(최근 동향) 사회 인프라(SOC) 및 건설 경기 호황 이후 현재 조정국면

- 2000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경기호조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SOC 프로젝트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2016년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이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 중단되면서, 침체국면 지속

- 모잠비크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 중단은 모잠비크 프로젝트 시장에 직격탄

*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외한 신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

- 주요국들은 IMF의 자금지원이 재개되어야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모잠비크 프로젝트 시장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IMF는 모잠비크 정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은닉부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자금지원 재개는 없다는 입장 견지

- 주요 국제기구 및 원조국(주로 유럽국가)들도 IMF와 유사한 스탠스 유지

(경쟁국 동향) 중국, 일본 등의 진출은 활발한 반면, 우리는 진출 초기 단계

- 중국 :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 대형 SOC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면서,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대중(對中) 채무는 2.2조 달러로 중국은 6년 연속 모잠비크 제1의 채권국 지위 유지
 - 최근 모잠비크 내 도로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수주하였고, 자원개발, 전력 등으로 진출영역을 다각화 중

* (최근 사례) 中 CNPC, 모잠비크 천연가스 제4광구(Area 4) 지분 20% 매입(US\$ 42억)

중국의 모잠비크 SOC 프로젝트 시장진출 현황

모잠비크 내 주요 도로 건설	모잠비크 마푸투 시내 중국호텔	아프리카 최대 규모 현수교 건설
		

- 일본 : 상사 중심의 사업개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활발한 편
 - 일본 기업들은 Mitsui, Sumitomo 등 상사를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모잠비크에 투자 진출해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자원, 에너지 분야인 것으로 파악
 - 일본 기업들은 일본 원조기구(JICA)의 유무상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
- * 2018년 말 기준, 모잠비크의 대일(對日) 채무는 3억 달러로서 일본은 중국, 포르투갈에 이어 제3의 채권국

일본 기업의 최근 주요 투자 사례

- Mitsui : (2007) 천연가스 해상 제1광구(Area 1) 지분 투자(20%), (2016) Moatize 광산개발 투자(지분 14.25%)
- Sumitomo : (2016) 가스화력발전소 2기 건설 계약(Temane 및 Maputo 발전소, 100MW급 규모)

주요 경쟁국의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주 현황

프로젝트명	발주처	재원	수주기업(국가)	연도	금액(백만\$)
마푸투가스발전소	EDM	JICA	스미토모 (일본)	2015	150
1광구 LNG 플랜트	Anadarko	민간투자	CCS JV (일본, 미국, 스페인)	2015	15,000
가멤베 교량 건설	ANE	중국	CRBC (중국)	2014	765

가. 교역



(총괄) 우리나라와 모잠비크의 교역액은 크지 않으나,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

- * 우리나라는 모잠비크로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석탄 등 자원을 수입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수출은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모잠비크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부진을 보이는 반면, 수입은 유연탄 수입에 힘입어 큰 폭 증가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유연탄 수입은 2016년에는 20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억 달러 이상 수입
- * 유연탄 수입금액(US\$백만, 증가율) : (2016) 21(170%) → (2017) 137(557%) → (2018) 204(49%) → (2019.1~8월) 105(5%)

최근 한-모잠비크 교역액(US\$천)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월
수출액	101,296	67,614	45,382	57,222	63,545	38,939
수입액	28,924	11,759	25,368	149,629	235,577	126,333
무역수지	72,371	55,855	20,013	△92,407	△172,033	△89,39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9년)



(교역품목) 우리나라는 주로 모잠비크로 화학제품, 섬유제품, 승용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모잠비크는 우리나라에 석탄, 수산물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

- 2019년 1~8월 동안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의 수출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화물자동차(MTI코드 7412), 의약품(MTI코드 2262) 수출은 급증
 - * 화물자동차 수출액(증가율) : US\$ 796천(230%), 의약품 수출액(증가율) : US\$ 1,413천(174%)
- 수입품목 중 특기사항은 유연탄(발전용 석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특히, 바닷가재, 게 등 수산물 수입이 증가 추세
 - * 바닷가재 수출액(증가율) : US\$ 465천(8,236%), 게 수출액(증가율) : US\$ 387천(1,988%)

한-모잠비크 주요 교역품목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US\$천)	증가율(%)	품목명	금액(US\$천)	증가율(%)
1	기타 석유화학제품	11,754	-41.6	유연탄	104,855	4.0
2	위생용품	7,507	-6.3	나프타	19,269	86.7
3	합성수지	4,547	-24.5	연초류	1,317	-19.4
4	승용차	3,097	93.5	연괴및스크랩	906	-81.5
5	아연괴 및 스크랩	1,593	172.5	새우	534	0.0

주 : 2018년 1~9월 기준, 품목명은 MTI 6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9년)

나. 투자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투자액은 2019년 3월 말 기준 약 4,300만 달러에 불과

- 이 가운데 2012~2013년 동안의 가스배관 건설 투자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투자금액은 미미
-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전체 투자액(US\$ 42,835천) 중 '전기·가스·증기·배관' 분야 비중 89.2%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직접투자액 추이

구분	2012~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누계
금액(US\$천)	35,411	6,062	285	968	52	52	7	42,835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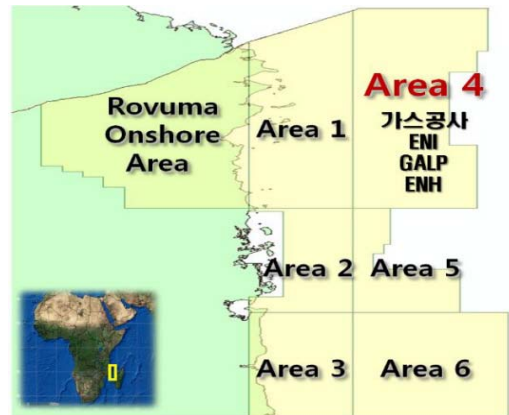
우리기업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유무상 원조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투자 진출

-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대(對)모잠비크에 유무상 원조금액은 US\$ 493백만(약정액 기준)인데, 이중 유상원조 비중이 8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 * 주요 유망원조 프로젝트 :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US\$ 120백만), 남플라-나메틸 고속도로 건설(US\$ 74백만)

투자진출 성공 사례 :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

- 한국가스공사는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6개의 천연가스 해상광구 중 제4광구(Area 4) 지분 10% 매입(2007년 7월)
- * Area 4 지분구조 : Eni(25%), Exxon-Mobil(25%), CNPC(20%), Galp(10%), ENH(10%), 한국가스공사(10%)

- 2011~2014년 동안의 탐사작업 통해 총 85Tcf 규모의 가스층 발견
- 이후 제4광구의 최초 개발사업인 'Coral South FLNG'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BP와 LNG 판매계약 체결



- 2017년 5월에는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FDI)이 완료되었으며, 2022~2023년부터 연간 34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할 전망
- * 추정 매장량(85TCF) 중 계약 기간(~2046년) 동안 약 56TCF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LNG 환산 시 약 13억 톤으로 세계 LNG 소비량(2016년 기준 2.6억 톤)의 약 5년 치에 해당
- (평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탐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출하여 상업화까지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짐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사업 분야

- 2017년 제4광구(Area 4)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제1광구(Area 1) 개발도 본격화(2019년 6월에 제1광구 개발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 발표)
 - * 2017년 제4광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인 'Coral South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FLNG 선박 건조식(삼성중공업 수주)이 이루어지는 등 프로젝트 본격화
- 모잠비크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여, 본격적인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
 - 이 외에 조선, 해운, 엔지니어링, 건설, 비료, 화학플랜트, 가스발전소 등 천연가스 연관 분야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
- 우리기업으로서는 직접적인 사회 인프라 분야보다는 화학플랜트, 가스발전소 등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기회 창출에 주력할 필요
 - * Area 4광구 지분 보유한 가스공사의 브랜드와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천연가스차량(Natural Gas Vehicle) 확충 프로젝트 분야

- 모잠비크 에너지부는 모잠비크 국내 천연가스 활용 확대 및 원유수입 비용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차량(NGV) 확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천연가스차량 선진국인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
- 2018년 9월에 양국 정부 간 천연가스차량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아래 사진 참조), 우리 정부(환경부)의 자금지원으로 프로젝트 타당성(F/S) 조사도 완료(2018년 10월)



- 천연가스차량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모잠비크 정부에서도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유망

* 우리는 2000년부터 천연가스 차량을 공급해오고 있는데,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약 81%(31,115대)가 천연가스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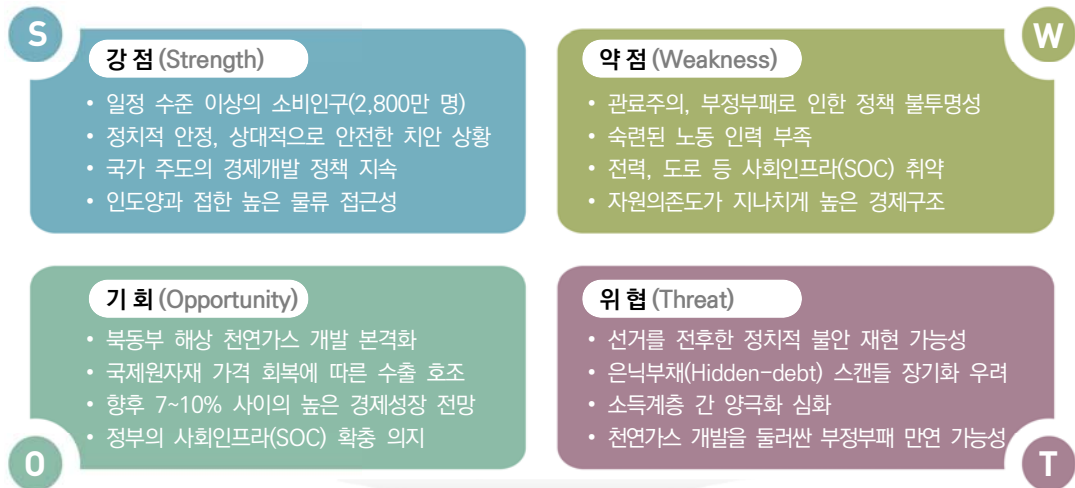
Ⅲ. 진출전략

※ (정부) 한-모잠비크 양국 간 협력기반 조성 → 우리 기업들이 모잠비크 공공 프로젝트(SOC 프로젝트, 공공 조달 등) 시장에 진출할 기회 창출

※ (기업) 모잠비크 경제개발에 따라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초기에 집중 공략 → 미래 유망시장 선점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모잠비크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구매력 보유한 중상위 소득계층 집중 공략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유망시장 진출	경제개발에 따른 시장수요 포착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저가 혁신제품으로 소비시장 선점 • 'Made in Korea' 브랜드 100% 활용 통한 제품 차별화	모잠비크 시장에 맞는 제품 차별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후방 수혜산업 기획 포착 • 정부의 SOC 확대정책 활용 유망 프로젝트 발굴	유망 프로젝트 개발 통한 시장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정책지원(EDCF 등) 통한 시장진출 리스크 최소화 • 남아공 등 거점 국가를 통한 우회 진출	탄력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경기회복에 따른 시장수요 포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세 등에 힘입어 광업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모잠비크 경기회복 주도
 - * 향후 모잠비크 경제는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연 1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 전망
-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연관산업 파급효과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지속으로 산업개발도 본격화
 - * 유망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에 따른 자본재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확대

2020년부터 경기회복 궤도 진입 전망 → 다양한 시장수요 분출

-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사이클론 피해 복구 프로젝트 추진,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 2020년 모잠비크 경제성장률 전망치 : 6.0%(IMF), 3.5%(World Bank), 3.0%(EIU)
- 평화협정 체결 등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
 - 2025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Agenda 2025' 정책효과 본격화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 품목 집중 공략

- (소비재)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형적인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수요증가 품목인 가전 제품, 휴대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세
- (자본재) 사이클론 피해 복구사업, 광산개발 투자,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사회 인프라 (SOC) 확충 지속에 따라 자본재 수입수요 확대

2-2. 우리기업 진출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프로젝트 시장 일시적 침체기나 2020년 이후 회복 전망
 - * 최근 모잠비크 정부가 은닉부채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협상 완료 → IMF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 모잠비크는 최빈개도국으로 사회 인프라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여 개발수요도 높아 전략적 차기 충분
 - * 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점수 : 37.3(138개국 중 130위)

최근 프로젝트 시장 일시적 조정국면이나 2020년 이후 다시 회복될 전망

-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이후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모잠비크 프로젝트 시장이 침체 상태이나, 최근 모잠비크 정부가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어서 은닉부채 문제는 조만간 해결 전망

- 북동부 해상지역 천연가스 개발 및 석탄 등 광물자원 생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취약한 사회인프라(SOC)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의 의지도 높은 편

모잠비크 프로젝트 시장변화 분석 통한 유망분야 발굴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특히, 석탄)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발주 인프라
 - * 유망분야 : 발전, 도로, 항만, LNG, 비료, 암모니아, 메탄올 플랜트 등
- 2030년까지 전력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Energy for All」 정책 추진 → 발전소, 송배전선 건설 등 전력인프라 분야에 2030년까지 160억 달러 투자 계획
 - 세계은행(World Bank)은 모잠비크의 전력인프라 현대화(주로 송배전 효율성 향상)를 위해 US\$ 150백만을 지원하는 등 전력보급 확대정책 적극 지원

공여성 차관과 민관 협력사업을 결합하여 민간투자 리스크 완화

- 모잠비크 정부는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투자유치 통한 재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사업 타당성 부족
- EDCF(기반시설 차관제공)와 민간기업(설비투자 및 사업 운영) 간 역할분담 시 기업 투자 부담 경감 가능 → 수익성 개선을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

우리기업 수주 가능한 MDB 컨설팅 사업 개발

- 국제개발 사업에서 컨설팅과 본사업 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컨설팅 사업 참여 통해 우리기업 차관 조달 사업 참여 가능성 증대
- 한국신탁기금 재원 활용 통해 사업승인 용이성 확보
 - * 아프리카개발은행 KOAFEC, 세계은행 Green Growth Fund 등

2-3. 모잠비크 공공조달 시장 회복기 시장 선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로 정부 발주 공공조달 시장 일시적 위축 상태이나 조만간 회복 전망
 - * 향후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지출도 점차 확대될 전망
- 모잠비크는 빈곤 감축, 사회개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매물량이 많으며, World Bank 등 국제 원조 기구의 구매는 경기에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여건 제공

공공조달 시장도 긴축재정으로 위축상태나 2020년 이후 회복세 보일 전망

-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이후 국제사회의 재정지원 중단 및 IMF의 컨설팅에 따라 긴축 재정 시행 → 정부 발주 공공조달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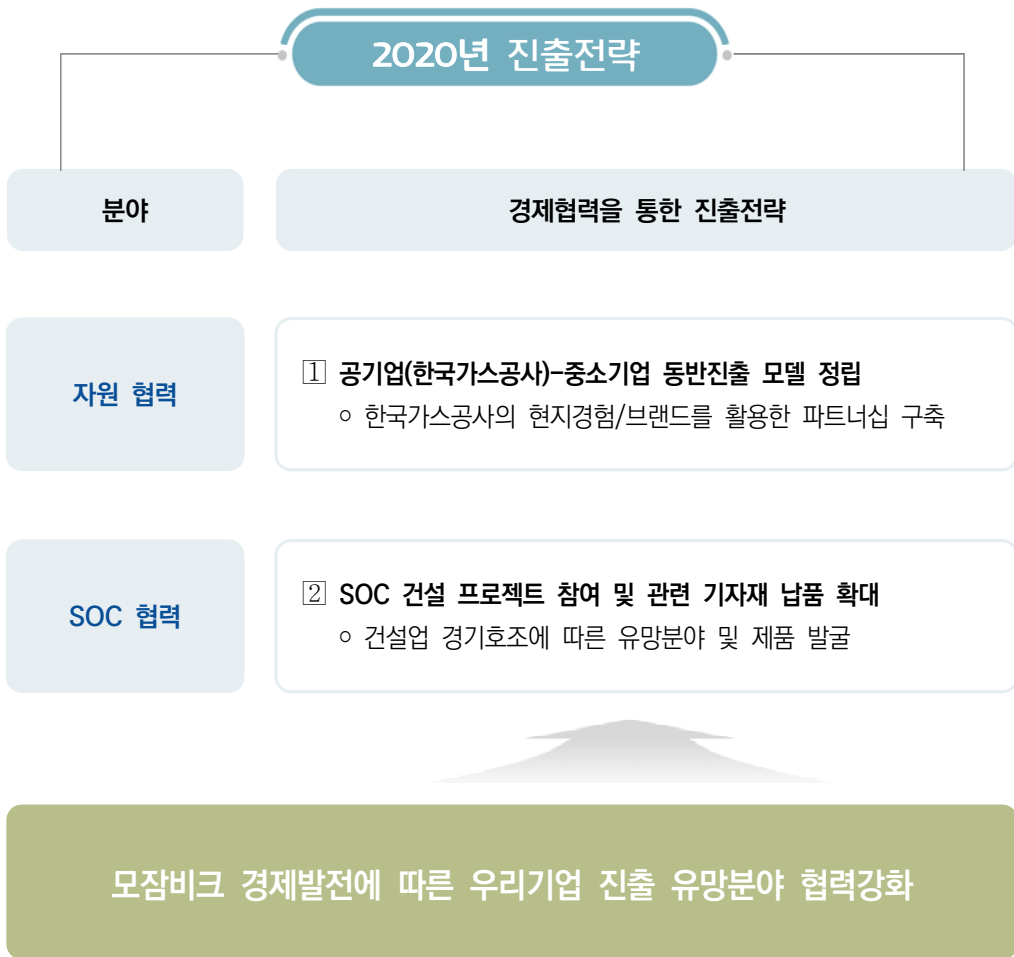
- 최근 들어 모잠비크 정부는 지방선거 및 대선 등을 감안, 재정긴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로 점차 정부지출도 회복 전망



정보발굴(Bid Identification) ⇒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으로 진출전략 변화

- 모잠비크 진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바이어발주처의 자금력 부재가 지적되나, 실제 문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할만한 재원이 확보된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임
 -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모잠비크는 정부재원에 비해 사업계획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사업 간 경쟁이 불가피
- 현지정부의 사업개발 능력 부재 속, 누가 어떤 사업을 먼저 개발하여 승인을 받는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좌우되고 있음
 - * (예시) UNICEF 모잠비크 구급차 공급사업 : 삼륜차+트레일러 vs. 승합차
- 모잠비크 경제사회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개발 통해 우리기업 수주 확대 가능
 - 사업 제안 통해 타당성 조사(F/S) → 설계 → 본 사업 순차 수주

3 한-모잠비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자원협력) 공기업(한국가스공사)-중소기업 동반진출 모델 정립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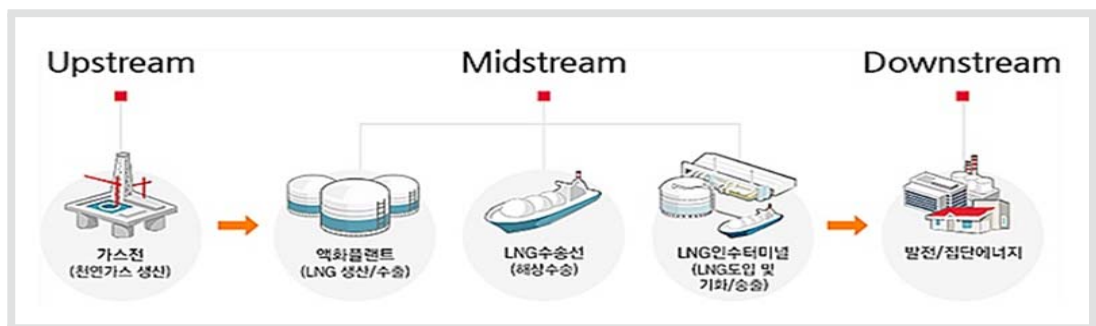
-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본격화
 - * 6개 광구 중 제4광구(Area 4)의 최종투자결정으로 2022~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 가능할 전망
- 천연가스 생산, 저장, 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 매우 취약 → 대규모 사회인프라(SOC) 확충 프로젝트 추진
 - *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US\$ 160억)을 SOC 확충 등 경제개발에 투입될 예정

한국가스공사와 협력 통해 천연가스 개발 연관 프로젝트 참여

- 향후 천연가스 개발이 더욱 본격화되면 천연가스 수출항구 개발, 육·해상 배관 건설, LNG 수송선 등 연관 프로젝트들도 활기를 보일 전망
 - * 특히,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FLNG 건설의 경우 총 구매액의 60% 이상을 국내 기자재 업체로부터 조달할 방침이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수혜 전망
-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단독 참여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현지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가스공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통한 시장진출 필요

천연가스 개발과 국가개발 정책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 모잠비크 정부의 천연가스 사용 확대정책 활용
 - 모잠비크 정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차량(NGV)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
- 천연가스 후방 연관산업(Downstream) 분야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
 - * (유망분야) 천연가스를 활용한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 플랜트 건설, 가스발전소 건설 등



자료 :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법인

3-2. (SOC 협력) SOC 건설 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 기자재 납품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모잠비크 건설업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EIU, “모잠비크 건설업은 아직 2014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등에 힘입어 향후 모잠비크 건설업 급팽창 예상

ODA, EDCF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수요증대 품목 공략

- 현실적으로 우리기업의 모잠비크 SOC 단독 진출은 쉽지 않은바, 우리 정부의 유무상 원조를 통해 SOC 프로젝트 개발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구축 필요
 - * 2018년 말까지 우리정부는 모잠비크에서 총 12건의 EDCF 프로젝트 승인
- 모잠비크 사회 정세 상황 및 국가개발전략 등을 고려, 아래 4대 분야에 협력 집중
 - (교통)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구축
 - (에너지) 전력인프라 확대 통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보급 확대를 통한 모잠비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수자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
 - (교육) 인적 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특히, 기술인력 양성 지원에 집중)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3:7	소량 주문에도 적극 대응
■ (현황) - 모잠비크 바이어들은 제품 수입 시 대금의 30%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제품 도착 직전에 나머지 7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대응전략) ☞ 국내기업들의 경우,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첫 거래 시 무조건 100% 선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지 관행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결제조건을 고수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다만,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의 경우는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신용도 등 바이어 정보 사전 파악 필요	■ (현황) - 모잠비크 바이어들의 주문물량이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응전략) ☞ 모잠비크 바이어들의 소량 주문도 무시하지 말고 컨테이너 소량 적재(LCL) 방식 등을 통해 바이어들의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다만, LCL 방식의 거래는 운송에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가벼운 제품은 항공운송도 적극적으로 고려
느긋한 현지 바이어	평판이 중요한 시장
■ (현황) - 현지 바이어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우리 기업들의 이메일에 대한 회신도 늦는 경우가 많음 ■ (대응전략) ☞ 느긋한 현지 문화를 감안하여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화를 내거나 바이어들에게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독촉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삼가야 함	■ (현황) - 모잠비크는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해외비즈니스 인구도 많지 않은 편이므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선입견이 중요하게 작용함 ■ (대응전략) ☞ 현지 바이어들과의 진정성 있는 거래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유지하는 노력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252310	수입관세율(%)	7.5
시멘트 크링커	수입액('18/US\$천)	56,530	대한수입액('18/US\$천)	0
	선정사유	건설업 경기회복		
	시장동향	모잠비크 건설경기 회복으로 시멘트 수요 크게 증가		
	경쟁동향	베트남, 이란, 포르투갈, 스페인, 인도 등		
	진출방안	현지 시멘트 제조업체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		
품목명 2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7.0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천)	24,924	대한수입액('18/US\$천)	270
	선정사유	국산 차 판매 증가로 국산 부품 수요 동반 상승세		
	시장동향	운행 중인 차량 노후화로 A/S 부품수요 다대		
	경쟁동향	남아공, 중국,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		
	진출방안	경쟁국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품목명 3	HS Code	390120	수입관세율(%)	2.0
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천)	9,443	대한수입액('18/US\$천)	1,378
	선정사유	현지 제조시설이 있어 원료 수입수요 있고 국산제품 경쟁력 보유		
	시장동향	현지 경기회복으로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프랑스, 인도, 남아공 등		
	진출방안	현지 제조업체 구매정책 파악 및 마케팅		
품목명 4	HS Code	850421	수입관세율(%)	5.0
변압기	수입액('18/US\$천)	3,469	대한수입액('18/US\$천)	1
	선정사유	송배전 효율성 향상 변압기 수요 증대		
	시장동향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경쟁동향	남아공, 인도, 포르투갈, 중국, 이탈리아		
	진출방안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에이전트 발굴		
품목명 5	HS Code	870323	수입관세율(%)	20.0
승용차	수입액('18/US\$천)	30,337	대한수입액('18/US\$천)	1,436
	선정사유	국산 자동차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장수요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일본, 유럽 등		
	진출방안	현지 유력 딜러십 확보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ICT 산업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시장동향	기업 전산화, 전자정부 정책 추진으로 수요 확대
	경쟁동향	독일 등 유럽제품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기술인력 양성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제시
품목명 2		
건설	선정사유	모잠비크 건설경기 회복세
	시장동향	전반적인 경기회복, SOC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기 회복세
	경쟁동향	포르투갈, 중국 등
	진출방안	유무상 원조 등 정책지원 활용한 시장진출
품목명 3		
플랜트	선정사유	천연가스 개발 등으로 관련 플랜트 시장 확대
	시장동향	비료, 화학플랜트, 발전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경쟁동향	남아공, 독일, 일본 등
	진출방안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수출지원

-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FACIM, 모잠비크 최대 규모 종합 박람회) 참가
 - － 시기/장소 : 2020년 8월 말(잠정), 모잠비크 마푸투 인근(Marracuene) 전시장
 - － 참가대상 : 모잠비크 시장진출 관심 국내기업

2019년 참가 실적

- 전시회 규모 : 23개국 2,000개사 참가(모잠비크 국내기업 1,800개사, 외국기업 200개사)
- 한국관 운영실적 : 모잠비크 시장진출 관심 기업 24개사 제품 홍보 및 대리 상담



- 연중 지원사업
 - － 지사화, 해외시장 조사대행, 세일즈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국내 개최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모잠비크 공공조달 지원센터 운영

- 모잠비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들의 조달정보 입수 및 국내기업의 공공조달 입찰활동 밀착 지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프로젝트 정부 입수 및 전파, 발주처 초청 등 입찰지원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40차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정상회담	-	시기 미확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56회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FACIM 2020)	2020.8월	
제7회 Mozambique Gas Summit	2020.11월	

I. 한-모잠비크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모잠비크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모잠비크의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보유한 '자원부국'
 - 석탄, 알루미늄, 천연가스, 철광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 체계적인 정보 축적,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광물자원 생산 가능
 - 특히 전기차, 스마트폰, ESS(에너지저장장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흑연'이 대거 매장
 - * 모잠비크에는 전 세계 흑연 매장량의 약 1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제2의 카타르(Qatar)』로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시장
 -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2023년 예상) 40년 동안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수입 발생 전망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재정수입을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 →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
 - * IMF 등 국제기구들은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 모잠비크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 협력 현황

- 중국
 - 정부 차원의 중국-아프리카 간 협력채널 구축 통해 전방위적 협력 추진
 - 광물자원, SOC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전폭적인 자금지원
 - *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모잠비크 채권액은 2.2조 달러로 6년 연속 최대 채권국 지위 유지
- 일본
 - 일본 역시 TICAD 등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을 통해 자국기업의 진출 지원
 - 일본 기업들은 Mitsui, Sumitomo 등 상사를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모잠비크에 투자 진출해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자원, 에너지 분야인 것으로 파악

나. 한-모잠비크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경제발전의 동반자 관계 정립

- (한국 → 모잠비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전수, 사회인프라(SOC) 확충 지원, 기술 인력 양성 협력 등 모잠비크 경제발전의 도우미 역할
- (모잠비크 → 한국)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역할

* 2016년 기준 모잠비크의 흑연(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량은 42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3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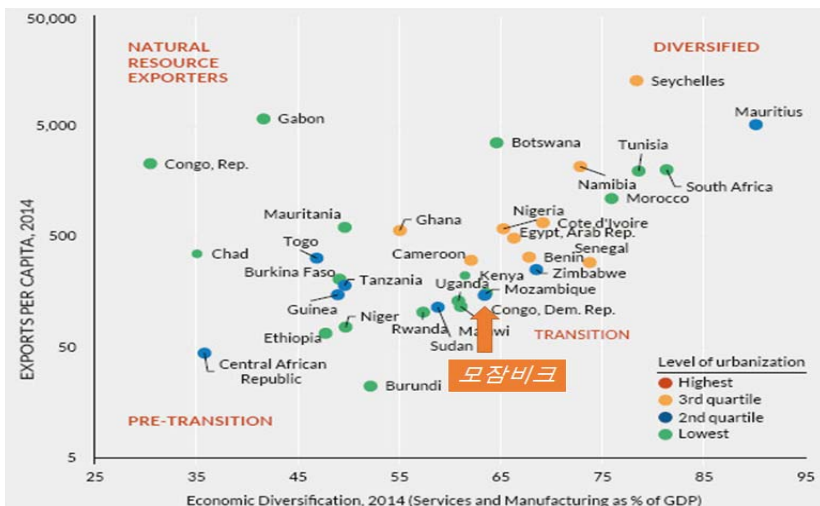
모잠비크 산업 다각화 지원

- 모잠비크는 농업, 광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 등과 같은 대외변수에 취약한 편

*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1차 산업 비중 35.5%, 전체 고용자 수 중 농업부문 비중 74.6%

- 천연가스 재정수입을 경제성장에 투입 → 모잠비크 정부의 산업 다각화 정책 강화

모잠비크의 산업 다각화 현황



자료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ited Nations(2017년)

2025년까지 한-모잠비크 교역규모 5억 달러 달성

- 현재 한-모잠비크 교역규모 3억 달러(2018년) ⇒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통해 2025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5억 달러로 확대 추진

* (한) 본격적인 모잠비크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기회 활용, (모) 에너지 및 전략 광물자원 공급 확대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 공유

① KSP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전수

- 모잠비크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의지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하는 모잠비크 정부의 협력수요 반영하여 KSP 사업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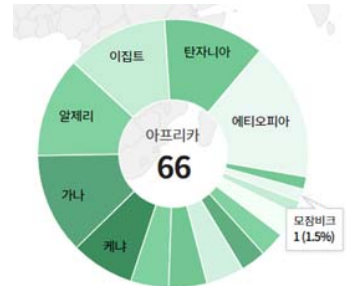
*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Mr. Ragendra de Sousa) :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KSP 사업실적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황

- － 현재까지 대(對)아프리카 KSP 사업실적(66건) 중 모잠비크 KSP는 단 1건*에 불과(최종보고회까지 모두 완료된 사업 기준)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시기 : '08/09, 수행기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2019년 중 신규 추진되고 있는 모잠비크 KSP 사업은 3건이며, 분야도 다양



2019년 모잠비크 KSP 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1	모잠비크 마니카 2개 지역(Cotine, Mussorizi)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	5.8억 원	2019~2020
2	모잠비크 나칼라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배로 간 설치 지원 사업	5.2억 원	2019~2020
3	모잠비크 운전면허 교육 시스템 현대화 사업	4.0억 원	2019~2020

주 : 3번 사업은 KOTRA 마푸투 무역관에서 발굴

자료 : 대외경제협력기금(2019년)

- 향후 모잠비크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 KSP 사업발굴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분야도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탈피, 다각화할 필요

* (사례) KOTRA 마푸투 무역관 신규 발굴사업 : ‘모잠비크 마푸투주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② 공여성 원조사업 확대 통한 모잠비크 사회인프라(SOC) 확충 지원

- 유상원조 사업(EDCF 프로젝트) 재개

- －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가난한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y)으로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전력·도로·통신 SOC 구축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 － 2016년 4월 드러난 20억 달러 규모의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로 인해 IMF 등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이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도 중단

* 우리 수출입은행은 기존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프로젝트는 지원 중단

-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되, 한-모잠비크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자금지원 재개를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필요

* EDCF 프로젝트는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 시장에 우리기업이 진출하는 데 큰 역할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EDCF 프로젝트 추진 현황

연번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U\$백만)
1	2008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	45.00
2	2009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	20.00
3	2009	GAZA주 송배전망 확충사업	49.08
4	2010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35.00
5	2010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	25.00
6	2011	교육개선 사업	18.10
7	2013	남플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	75.44
8	2013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48.62
9	2014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 (보충용자)	25.00
10	2014	구급차 공급사업(소액차관)	5.00
11	2014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5.00
12	2015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88.7
합계			439.95

자료 : 대외경제협력기금(2019년)

○ 무상원조 확대 통해 모잠비크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 2016년 은닉부채(Hidden-debt) 스캔들 이후 유상원조 사업은 중단되어 있으나, 무상원조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바, 당분간 무상원조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

*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무상원조액은 U\$ 52.97백만(약정액 기준)

- 최근 모잠비크 정부는 보건, 빈곤감소 등 전통적인 무상원조 분야 외에도 도로 교통 안전, 기술 인력 양성 분야 지원 희망 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 존재

* (사례) KOICA, 모잠비크 마톨라(Matola) 지역에 '산업학교' 운영 통해 현지 기술인력 양성 지원

③ 우리기업의 모잠비크 시장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모잠비크 시장진출 위한 경제협력 협력조약 체결

- 투자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등 기본적인 조약 체결 필요

* 우리기업은 모잠비크와의 비즈니스에 있어 '세제' 분야에 애로가 많아 조속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

○ 비자발급 애로사항 해소

- 우리기업은 모잠비크 방문비자, 주재원 비자, 취업비자 발급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보다 원활하게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

① 한-모잠비크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

○ (제조업) 관세장벽이 높은 제조업 분야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통한 현지화 필요

- 모잠비크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특별소비세(10%)도 납부해야 하는 등 관세장벽이 높은 편
- 이러한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과 함께 모잠비크 현지에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율이 낮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 후 현지 조립공장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면 관세장벽 회피 및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한국-모잠비크 기업 합작투자 사례

- 기업명 : 영산글로벌
- 투자내용 : 모잠비크 현지기업(Petromoc)과 합작하여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2013년)
- 투자성과
 - 반제품을 수입해 자동차를 조립하여 현지에 공급함으로써, 높은 완제품 수입 관세를 회피하고 현지 인력도 고용하여 모잠비크 정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음

○ (천연가스) 현지기업과의 합작 통해 강화되는 'Local Contents' 조항 대응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조항을 준비 중
-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처럼 강화되는 로컬콘텐츠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

천연가스 분양 양국기업 협력 사례

- 기업명 : 한국가스공사
- 투자내용 : 천연가스 공급 사업
 - 모잠비크 가스공사(ENH)와 함께 마푸투 시내에 상업용 가스배관(82Km) 건설, 운영(2014년 5월~)

② 모잠비크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 분야 협력 강화

- 모잠비크 정부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① 농업, ② 에너지, ③ 인프라, ④ 관광산업을 '4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모잠비크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을 감안하여, 상기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기업과 JV 설립, 지분투자 등과 같은 협력을 강화할 필요

다. [B2G] 공공조달, 사회인프라(SOC) 프로젝트 협력 강화

① 공공조달

- 교육부문
 - 모잠비크는 정부재정 및 인쇄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아 국제입찰을 통해 교과서를 인쇄하고 각 학교에 보급
 - 우리나라의 높은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모잠비크 교과서 공급 입찰 참여 필요
 - * 국내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 또는 모잠비크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간접 입찰 모두 가능

국내기업 입찰 성공 사례

- 기업명 : A社, B社
- 성공 사례 : ① 모잠비크 교육부가 발주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공급 입찰 수주
② 모잠비크 현지 업체가 수주한 교과서 공급 입찰 참여 통해 교과서 납품

- 보건부문
 - 모잠비크 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으로 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지속
 - 모잠비크 정부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보건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에 포함
 - * 주요 내용 : ① 보건서비스 수혜자 확대, ② 의료서비스 질 개선, ③ 지역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④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 ⑤ 기관 간 협력 확대, ⑥ 정책 투명성 제고, ⑦ 의료시스템 강화
 - 의약품/의료기기는 제품특성 상 현지에서 사후관리(A/S)가 가능한 협력업체 발굴이 필수적이며, CSR 사업 등을 통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구축도 중요

국내기업의 현지 CSR 활동 사례

- 기업명 : A社
- 활동 사례
 - 국내 의료기기 업체인 A社は 2019년 5월에 모잠비크 마푸투중앙병원(Maputo Central Hospital)에 98,000 유로 규모의 진단기기(1,868개) 및 스텐트(121개)를 기증

- 전력기자재
 - 모잠비크 정부의 전력공급 확대정책(2030년까지 전력보급률 100% 달성)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송배전 효율성’ 분야에 투자 집중
 - 이와 함께, 2019년 3~4월 동안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Idai, Kenneth)으로 인해 전력 인프라가 상당 부문 파괴 → 전력인프라 복구 관련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 (사례) 모잠비크 전력청(EDM) : 사이클론 피해 복구 관련, 3,600대에 이르는 변압기 공급입찰 발주 (2019년 8월)

－ 현지 전력기자재 업체(모잠비크 전력공사 벤더)와의 협력통한 입찰 참가 필요

2 사회인프라(SOC)

모잠비크 사회 인프라 현황

- 전력, 교통, 통신 등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유지·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 전력보급률 : 31.1%(2018년)에 불과, 1인당 도로 보급률 : 아프리카 54개국 중 45위, 수자원 보급률 : 50%
- WEF(World Economic Forum) 발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 순위는 전 세계 140개국 중 130위

모잠비크 인프라 경쟁력 순위

Index Component	Value	Score *	Rank/140	Best Performer
 Pillar 2: Infrastructure 0-100 (best)	-	37.3 ↓	130	Singapore
2.01 Road connectivity index 0-100 (best)	56.2	56.2 =	84	United States
2.02 Quality of roads 1-7 (best)	2.4	22.8 ↓	133	Singapore
2.03 Railroad density km of roads/square km	3.9	9.7 =	77	Multiple (20)
2.04 Efficiency of train services 1-7 (best)	2.5	24.8 ↑	96	Switzerland
2.05 Airport connectivity score	2,267.5	18.9 ↓	125	Multiple (8)
2.06 Efficiency of air transport services 1-7 (best)	2.7	29.0 ↓	136	Singapore
2.07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0-157.1 (best)	9.3	9.3 ↓	87	Multiple (4)
2.08 Efficiency of seaport services 1-7 (best)	2.9	31.7 ↑	112	Singapore
2.09 Electrification rate % pop.	28.6	28.6 ↓	131	Multiple (66)
2.10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es % output	19.3	84.1 ↓	113	Multiple (9)
2.11 Exposure to unsafe drinking water % pop.	44.7	56.4 ↑	135	Multiple (23)
2.12 Reliability of water supply 1-7 (best)	2.7	28.1 ↓	125	Switzerland

자료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World Economic Forum(2019년)

- 향후 사회 인프라 확충 수요 다대
 - －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북동부 지역에 인프라 개발수요가 다대하고, 천연가스 재정수입이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될 전망

사회 인프라 부문 협력 방향

- (민관협력) 우리 정부의 공여성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진출 지원
 - － 모잠비크는 재정 부족으로 자체 자금으로는 프로젝트 발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기업의 진출 리스크도 높아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이 매우 중요

- (3국협력) 포르투갈, 브라질 등 포어권 국가와의 협력
 - － 포르투갈, 브라질은 모잠비크와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인 동질성이 높고 모잠비크 진출경험도 많아,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모잠비크 진출 검토 필요
 - * (사례) 일본 JICA는 브라질 원조 기관, 모잠비크 농업부와 공동으로 농업개발 프로젝트 추진(2009년)

라. [국민] 인력 및 문화교류 확대

① 인력교류

-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 － 한-모잠비크 외교관계 수립(1993년 8월 11일) 이후 양국 간 정상방문은 단 1차례에 불과
 - * 정상방문 : 모잠비크 게부자(Guebuza) 대통령 방한(2013년 6월), 우리 측은 총리 방문(2012년 7월)이 가장 고위급 방문
 - － 향후 우리나라 주요 인사 방문 시 모잠비크를 전략적으로 포함시켜 양국 간 협력관계 심화·확대 필요
- 모잠비크 인력양성 지원
 - － 모잠비크 공무원 초청 정책연수, 국비 유학생 선발, 기술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해 모잠비크 내 고급인력 양성 지원



② 문화교류

- 모잠비크 내 한국 문화행사 통한 한류(韓流) 기반 구축
 - － 모잠비크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우리 공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 (사례) 주 모잠비크 한국대사관은 2019년 5월 8일(수) 마푸투에서 '제1회 한국회화전시회 및 문화주간' 행사 개최
- 장기적으로는 모잠비크 내 한국문화원 개설 검토 필요
 - * 포르투갈, 브라질,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은 모잠비크 내에 자국 문화원 운영 중

Ⅲ. 향후 對모잠비크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모잠비크 정책협의회 가동

- 양국 정부 간 정책협의회 정례화 통해 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현황 점검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는 하위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신규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결 등 실행력 제고

② KOTRA 마푸투 무역관을 양국 경제협력 ‘옴부즈만’으로 지정·활용

- KOTRA 무역관이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양국 정부에 통보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Trouble Shooter’ 또는 ‘경제영사’ 역할 수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고일훈	관장	마포투무역관	+258-21-487-072	iruni@kotra.or.kr

KOTRA자료 20-112

2020 국별 진출전략 **모잡비크**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58-3(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